

“삿포로와는 다르다... 도쿄돔은 약속의 땅”

한국 야구대표팀 오늘 일본과 4강전... 설욕 벌려

김인식 감독, 2006년·2009년 이어 3승 도전



프리미어 12

야구 국가대표전인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준결승 무대에 오른 한국 대표팀이 '결전의 땅' 일본 도쿄에 입성했다.

김인식(68)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전 대만을 떠나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하네다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 감독과 선수들은 파란을 호소하면서도 "확실히 마음가짐이 삿포로 때와는 다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슴 졸였던 시간은 끝났다. 한국 대표팀은 설욕의 의지를 가득 담고 도쿄로 왔다. 한국은 19일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에서 일본과 준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8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돔에서 열린 일본과 이번 대회 개막경기이자 조별예선 B조 1차전에서 0-5로 참패했다. 1패를 안고 대만으로 이동한 한국은 조별예선에서 3승 2패, 조 3위로 8강에 진출했고 16일 쿠바와 8강전에서 7-2로 승리해 도쿄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한국전 승리로 기분 좋게 대회를 시작한 일본은 조별예선 5전 전승을 거두고 8강전에서 푸에르토리코를 9-3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전에 올랐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일본이 더 좋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은 동등한 위치에서 경기를 치른다. 4강전

단판 승부에서 승자는 결승에 오르고 패자는 3·4위전으로 밀린다.

한국은 개막전이 열린 삿포로돔, 8강전을 치른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구장을 경기 당일에야 밝는 약재에 시달렸다. 4강전은 다르다. 한국은 18일 오후 4시 도쿄돔에서 훈련을 했다. 경기 하루 전에 도쿄돔에 적응할 시간을 가진 것이다. 정근우, 이용규, 이대호, 김현수, 김광현, 이대은, 정우람, 정대현 등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러본 선수들이 많은 것도 한국 대표팀에는 호재다. 이들이 직접 경기에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선수에게 구장의 특성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일본이 선발로 예고한 '약관의 에이스' 오타니 쇼헤이는 올해 도쿄돔에서 단 한 차례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8일 삿포로돔에서 열린 한국전에서 시속 161km 직구와 147km 포크볼을 앞세워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한 오타니도 타자 친화적인 도쿄돔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김인식 감독은 2006년,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영광 재현을 꿈꾼다. 한국은 2006년 WBC 예선 때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2009년 WBC 2라운드 예선에서 일본에 2-14로 7회 콜드게임 패 수모를 당했지만 2라운드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설욕했다. 2006년과 2009년 WBC 한국 대표팀 사령탑도 김인식 감독이었다.

김인식 감독은 "일본은 분명히 강한 팀이다. 전승을 거두고 있지 않은가"라고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일본도 한국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야구는 해보아야 안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일본전 선발 이대은 타자 친화형 구장 부담없이 던져라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 4강에 진출하며 일본과의 결전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팀 투수 이대은이 18일 오후 일본 도쿄돔 구장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수비 연습을 하며 와인드 업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은(26·지바롯데 마린스)이 속명의 한일전에 한국 선발로 나선다.

김인식(68) 한국 대표팀 감독은 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적을 훈련을 앞두고 "순리대로 간다. 이대은이 내일(19일) 선발로 나선다"고 말했다.

한국은 19일 도쿄돔에서 일본과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준결승전을 치른다. 일본은 일찌감치 준결승전 선발을 오타니 쇼헤이(21·닛폰햄 파이터스)로 확정해 발표했다. 김인식 감독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이대은을 4강 선발로 내정할 상태였다.

김 감독은 "현재 대표팀에서 정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선수는 김광현, 장원준, 이대은이다. 선발 3명 중 이대은이 가장 오래 쉬었다. 구위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대은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그는 지난 12일 베네수엘라와 B조 예선 3차전에서 선발로 나서 5이닝을 6안타 2실점으로 막았다. 이후 6일을 쉬 후 일본전을 치른다. 그는 신일고 재학 중이던 2007년 6월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계약, 한국 프로야구를 거

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지만 시카고 컵스 산하 트리플 A팀인 아이오와에서 뛰면서 마이너리그 통산 135경기에 등판해 40승 37패에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일본 무대에 등지를 틈 이대은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37경기 9승 9패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했다. 이대은은 일본 대표팀 타자들이 낯설지 않다. 일본 타자들보다 이대은의 공에 익숙하다.

김인식 감독은 "정말 반반이다. 이대은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타자 친화적인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이대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주위에서 이대은에게 '부담 없이 던지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대은에게는 잃을 게 없는 경기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던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은은 퍼시픽리그 소속이라 도쿄돔 마운드는 익숙지 않다. 올해 한 차례 선발 등판해 3.2이닝피안타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상대인 일본 선발 오타니는 올해 퍼시픽리그 최고 투수다. 오타니는 15승 5패 평균자책점 2.24를 기록했지만 도쿄돔에서는 한 경기에 나서 6이닝 7피안타 3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FA 시즌 시작 KBO, 이범호 등 24명 공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8일 2016년 자유계약(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KIA 내야수 이범호(사진)를 비롯한 오재원 고영민·김현수(이상 투수), 박석민·이승엽(이상 삼성), 마정길·손승락·유한준·이택근(이상 넥센), 윤길현·정우람·채병용·정성호·박재상·박정권·박진만(이상 SK), 조인성·김태균(이상 한화), 송승준·심수창(이상 롯데), 이종현(LG), 김상현·장성호(이상 kt) 등 총 24명이다.



이범호 등 6명이 재계약 선수다.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박진만 1명이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김현수를 포함해 17명이 처음 자격을 얻었으며 이범호 등 6명이 재계약 선수다.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박진만 1명이다.

이번에 공시된 2016년 FA 자격 선수는 20일까지 KBO에 FA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1일 FA 승인 신청 선수 명단을 공시한다.

FA 승인을 신청한 선수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해외구단 포함)과 협상태이블

을 차리게 된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월 15일까지 소속구단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한편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KBO 정규시즌 팀 경기수의 3분의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 투구이닝(팀 경기수의 3분의2 이상 투구이닝 시즌이 9시즌에 이를 경우 취득할 수 있다. 또 정규시즌 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6년 이전 150일)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인정받는다. 2006년 이후 입단한 선수부터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 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얻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나주서 오늘부터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

141팀 1220명 참가

제5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가 19일부터 4일간 나주 소재 전남도 종합사격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사격 선수들이 한해 결산하게 될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중·고·대학·일반팀 등 141팀 1220명이 참가해 국제사격연맹 규정에 맞춰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2종목에서 개인전, 단체전으로 나눠 기량을 겨룬다.

경쟁이 격화되고도 활용된 전남도사격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공기총사격대회에서는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 사격 선수들과 꿈나무들의 열띤 경쟁이 기대된다.

전남도사격장은 지난 2008년 신축해 10m 90사대와 10m RT 3사대, 25m 50사대, 클레이 3조의 시설을 갖춘 국제규격의 종합사격장이다. 최근 최첨단 전자사격장비 시스템을 갖춰 올해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등 3개 전국대회와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격종목 경기장으로 활용됐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진짜 야구’ 위해 ‘야구’는 잠시 내려놓고...



KIA 전류조 선수들이 18일 전용 연습구장인 함평 헬리자스 필드 웨이트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함평 마무리 캠프

옛날 얼굴의 예비 신인부터 최고참 김진우까지... 함평의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KIA의 마무리 캠프가 한창이다. 일본 훈련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함평 헬리자스필드에서도 '호랑이 군단'의 2016시즌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훈련이 시작하고 끝날 때, 밥을 먹을 때에도 우렁찬 목소리가 쏟아진다. 아직은 프로라는 이름이 어색한 2016시즌 투기 '예비 신인'들이다.

최고참 김진우부터 신인까지

스트레칭 등 기본 훈련으로

체력 키우고 몸 만들기 집중

이들은 아예 짐을 싸두고 함평으로 왔다. 속수 생활을 하면서 프로 무대 적응에 나서고 있다. 기말고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이들이 있어 '신인조'의 수는 유동적이다.

오전 7시에 일어나 아침을 챙겨 먹으면 신인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선배들 틈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오후 7시에 야간훈련을 위해 다시 연습장으로 내려온다. 야구의, 야구에 의한, 야구를 위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야구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진짜 야구'를 위해 지금은 야구를 내려놓고 있다. 이들은 프로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 러닝, 스트레칭 등의 기본 훈련만 소화하고 있다.

2016 신인 투수 김현준은 "운동을 하

는 시간에는 힘들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게 재미있다. 아마추어와는 다른 프로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웃었다.

아쉬운 시즌을 보낸 김주형·김다원·최용규 '85동기' 등은 포수 박정우와 함께 '별크업'으로 몸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의 주요 일과가 웨이트다.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한 강한울과 시즌 중반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김진우도 재활조에서 내년 시즌을 기약하고 있다. 특히 김진우는 헬리자스 필드의 최고참이다. 망명 김진우는 적실하게 보강 훈련과 웨이트를 하면서 공을 다시 들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부상이 이어지면서 마운드 복귀를 1년 더 미룬 광정철도 18일 김준, 김지훈 등과 불펜 피칭을 하는 등 따뜻한 봄을 그리고 있다.

작별의 순간을 앞둔 이들도 있다. 올 시즌을 끝으로 군복무를 위해 잠시 떠나는 박준대, 황대인, 박정수, 문경찬, 이종석 등 입대 예정자들도 함평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경찰청 야구단에 최종 합격한 박준대는 "내달 24일 입대다. 시즌이 끝나고, 곧 입대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동료들과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고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타격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훈련 잘 마무리하고, 군복무 준비 잘하겠다. 더 많이 발전해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졸 신인으로 좌중우돌 한 해를 보낸 황대인의 2015시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황대인은 아시아 윈터리그 참가를 위해 25일 대만으로 건너가 입대까지 방방이를 휘두를 예정이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